

Dow, 오만 100만톤 크래커 건설

총 투자액 15억-20억달러 ... OCC 및 오만정부 지분 50% 보유

Dow Chemical 및 오만 국영 Oman Oil(OOC)이 오만 Sohar에 합작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Dow가 전체 지분의 50%를 소유하게 되며 오만정부와 OOC가 각각 25%를 소유하게 될 전망이다.

Dow에 따르면, Sohar 석유화학 콤플렉스는 가스 생산설비를 비롯해 가스 크래커 및 세계적 규모의 PE(Polyethylene) 플랜트 3개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 공사에 들어가 2008-09년 완공될 예정이며 생산능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Sohar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비용은 에틸렌 크래커의 생산능력을 약 100만톤으로 추정할 때 약 15억-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PE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각각 최소 30만톤에 이르고 Sohar 석유화학 콤플렉스에서 생산되는 에틸렌은 PE 생산용으로 100% 자가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Dow는 Sohar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석유화학 원료시장에서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서 중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중동에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har 석유화학 콤플렉스의 가스 코스트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오만 정부가 프로젝트마다 다른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 Sohar 석유화학 콤플렉스는 Dow의 3번째 중동 석유화학 단지가 될 전망이다. Dow는 2003년 쿠웨이트 Shuaiba 지역에도 Petrochemical Industries(PIC) 및 Boubyan Petrochemical과 45대45대10 합작으로 중동 2차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Shuaiba 콤플렉스의 에틸렌 크래커 생산능력은 85만톤에 달하며 200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Dow는 EG(Ethylene Glycol) 및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PTA(Purified Terephthalate Acid) 사업부를 Petrochemical Industries와의 50대50 합작기업으로 분사시켰다.

Dow의 오만 프로젝트가 최근 포기한 Sinopec과의 중국 Tianjin Olefin 합작 프로젝트의 대체물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Dow는 아직 중국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공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 에틸렌 크래커의 생산능력을 100만톤으로 추정했을 때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및 아르헨티나 생산능력을 포함해 Dow의 에틸렌원료 생산능력은 13-17%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Dow는 텍사스주 Seadrift 및 Texas City 소재 에틸렌 플랜트를 폐쇄했는데, 2개 플랜트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총 110만톤으로 Dow 전체 생산능력의 10%에 달한다. 또한 미국 가스 공급 및 가격부제로 인해 Seadrift 에틸렌 플랜트 대체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다.

오만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해 왔다. BP는 Sohar에 14억달러의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을 고려했으나 5년 전 에탄(Ethane) 공급문제로 프로젝트를 철회했다. 이후 오만 정부는 전기 분야의 가스 공급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Dow의 Sohar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에 공급할 가스를 충분히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OC는 Sohar에서 독일 Ferrostaal과 합작으로 메탄올(Methanol) 3000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LG상사와도 PP(Polypropylene) 34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30>